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나태주 시인·한국시인협회장

“우리 집은 아빠가 선생질을 해 근근이 먹고산다.” 지금도 이 문장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 온다. 우리 집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여름방학 숙제로 쓴 일기장에 들어 있던 문장이다. 마침 그때는 나도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한때 여름방학이 지나고 숙제 검사를 하던 아들이 담임선생님이 일부러 나를 불러서 그 문장을 보여 준 것이다. 아들이 일기장에 쓰기는 했지만 이 말은 애당초 아들이 의 것이 아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들에게 자주 해 준 말일 것이다. 그러기에 아이 그것을 외워 두었다가 마침 일기장에 아무것도 쓸 거리가 없는 날 이 말을 기억해 내고 무심히 옮겨 적었을 것이다.

근근이 먹고산다

우리가 살던 집, 아주 작은 단독주택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흥가가게라고 부르던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다. 그 가게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장난감이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이는 그 장난감들에 눈독을 들이고 살았다. 들락날락 가게 문을 드나들며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 달라고 졸랐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에게 장난감을 넘겨주지 않을 만만 한 돈이 아내에게 있을 까닭이 없었다. 늘 푼돈으로 찌꺼기 써도 돈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쌀값, 연탄값, 반찬값을 제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도 아이는 새로운 장난감에 마음을 뺏기고 자꾸만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으리라. 그럴 때마다 아내가 아이의 등짝을 한 대씩 때리면서 찌던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우리 집은 아빠가 선생질을 하여 근근이 먹고산다.” 장난감을 사 달라고 조르던 아이, 아이의 등짝을 때리며 경각심을 심어 주던 아이의 엄마, 그것을 바라보던 나나 모두 참으로 한심한 인물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한심한 사람은 바로 나. 그때, 학교 선생으로 일한다는 사람이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 사원사원 사주지 못해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들고, 아이에게는 그걸 또 일기장에 쓰게 했던 말인가!

이제 와서 가족들에게 참 미안하고 송구한 심정이다. ‘근근이’란 말은 일상 흔하게 쓰이는 말이 아니다. ‘어쩔사리’ ‘겨우’란 뜻의 부사이다. 또 이 말은 한자에 그 뿌리를 둔 말이기도 하다. ‘근근이’에 쓰여지는 근(儻)이란 글자는 여러 가지 뜻인데 한결같이 부정적이며 마이너스의 뜻이다. ‘겨우, 거의, 가까스로, 다만, 단지(但只), 희미하게(稀微-)’, ‘적게’의 뜻이 그것들이다.

정말로 그 시절 우리 가족의 삶이 그러했다. 매우 왜소하고 매우 부족하고 매우 썰렁하고 매우 좁게 살던 시절이다.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형편이나 상황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근근이 어렵게 사는 삶이다. 시간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인간관계가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두루 그러하다.

오늘날 우리는 단군 임금 이래 가장 잘 사는 세상을 살고 있다. 들쭉날쭉이기가 약하겠지만 의식주가 그대로 해결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한껏 보장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러나나 발언이 선했 집착이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데로 나있잖이나 먹은 내 눈으로 보기에 우리는 지금 분명히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아니라 기적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고 자기만 낙오자라고 투덜거린다. 마이너라고, 루저라고 한숨을 짓는다. 모두가 상대적으로 밋밋하다.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의 것만 훔쳐가려는 것이, 남의 것을 부러워하기에 앞서 자기의 것을 소중히 아름답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을 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높여야 할 일이다.

‘근근이 먹고산다’는 이 말을 우리는 지나치게 부끄럽게 불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상 우리는 모두 오늘 날에도 여전히 근근이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안쓰럽고 아름답고 눈물겨운 사람들이다. 비록 근근이 먹고 살지만 마음만은 더욱 너그럽게, 부드럽게, 풍부하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길이 정말로 물질로 마냥 풍요로운 오늘날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

종교칼럼

숲 속에 길이 있다



임형준 순천 빛보라교회 담임목사

제 성장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달렸던 지구인들에게 역설적으로 잠시 쉴 여유를 제공했다. 코로나 덕분에 지구 온난화가 잠시 멈춰 북극의 얼음 녹는 속도가 좀 줄었다고 한다. 마음껏 즐기고 쓰고 누리던 일상의 자유가 통제되고 박탈당하자 배출 가스가 줄어들고 신음하던 자연 환경이 서서히 회복되어 간다.

코로나 확산이 시작되던 4월 초부터 필자는 학교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차원이 아닌 코로나 문제의 해결이 숲 속에 있다는 나름의 인식과 확신 때문이었다.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끌어내려 자르고 산속에 버려져 깨어진 병과 비닐 등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버려진 땅을 개간하여 다랑이 뒷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기 시작했다. 숲 입구에 금계와 은계, 임꼬와 다람쥐를 구입해 키우기 시작하면서 먼저 자연과 그 속에 공존하는 동식물들을 알고 싶었다. 코로나를 통하여 필자의 삶이 바뀌었고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자연을 연구하며 보살피고 대화하고 기도한다. 최근에는 산에 흩어져 있는 들꽃과 꽃, 약초들을 대대 공부하고, 농업 대학을 이룬 북유럽 국가와 이

스라엘 관련 서적도 읽어 본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어서도 아니다. 사막 농업으로 기적을 이룬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꽤나 흥미롭다. 이스라엘 국토의 넓이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한 정도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연 강우량 200mm 이하인 땅이다. 농사 짓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여건이다. 그럼에도 농업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여, 식량을 자급하고서도 연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던 민족이다. 그들은 세계 각처에서 나라 잃은 처지가 되어 살면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국가를 세우는 운동을 펼쳤다.

이스라엘이 불모지 사막에서 일어나 오늘날 국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초대 대통령 하임 바이츠만과 초대 수상 벤구리온의 안목과 지도력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영국 맨체스터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던 유대인 하임 바이츠만 교수로부터 이스라엘 국가 건설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임 바이츠만 교수는 2000여 년 전 삶의 터전을 빼앗긴 유대 민족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자

스민의 나라를 세우야 한다는 신념을 지닌 인물이었다. 1910년 바이츠만 박사는 설탕에서 인조 고무를 얻는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설탕을 아세톤으로 바꾸어 주는 박테리아를 발견하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 중 폭탄 제조의 원재료인 아세톤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던 영국은 바이츠만 박사의 발명으로 국가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그의 발명은 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었다. 바이츠만 박사는 그간의 공로가 인정되어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사막에 농로를 열고 황무지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여 사막 농업의 기적을 만든 이스라엘 농업 수출 대국 스토리는 코로나 문제 속에 빠져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도전 의식을 되새겨 준다. 작금의 난국을 풀어나가는 지름길은 인간과 자연의 회복이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은 자연 안에 있고 오늘날 숲 속에서 그 길을 찾는다.

社說

열악한 광주 송정역 기반시설 확충 서둘러야

이용객 수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는 광주 송정역 대합실과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의 현주소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송정역의 이용객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당초 수요 예측을 잘못해 기반 시설을 작게 지으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08년 교통영향평가 당시 송정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을 8785명으로 추산해 2015년 증축했는데 실제로는 이용객이 3배 가까이 많아 비좁은 역사와 주차장 탓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송정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5년 5913명이었지만 KTX와 SRT 개통으로 지난해에는 2만 5646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대합실과 주차장 등 역사의 규모는 하루 1만 9803명이 이용하는 오성역의 4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송정역의 주차장은 608면에 불과해 하루 1만

7151명이 이용하는 울산역(1032면)은 물론 1989면인 오송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용객 1인당 연면적이나 대합실 면적도 오송역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경전선 개통,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등으로 송정역의 하루 이용객이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광주시가 송정역에 1666대 규모의 주차 발당을 지을 계획이지만 2022년 6월에야 완공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주차 전정에는 피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토교통부는 송정역 증축을 위한 국비 20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광주시의 의견을 일축했다고 한다. 송정역의 기반 시설 확충은 주차장만이 아니라 대합실 등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만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덜어 줘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도 ‘백신 사망’ 신속한 원인 규명

광주·전남 지역에서 이들 새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세 명이 숨졌다. 전국적으로도 사망 사례가 2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어제 순천에 사는 8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19일 백신 접종을 한 A씨는 심장 질환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독감 백신을 맞은 것은 맞지만, 심장 쪽에 거저 질환을 앓고 있던 분”이라며 “정확한 인과 관계는 정밀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도 같은 날 80대 여성 B씨가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졌고, 전남에는 목포에서 90대 여성이 사망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을 못다”는 것이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독백 백신 이상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 인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거나

이상 사례의 원인이 백신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충고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국가 무료 접종 대상자는 96만 명에 달한다. 접종 후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가 다수 포함된 탓에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에는 불안과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망자 두 명을 제외하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경우도 22건이나 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접종자 사망과 백신 간 연관 관계가 있는지 신속하게 파악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접종 기피로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백신 제조 및 생산 과정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감독을 강화해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축소한 미국 메이저리그는 지금 ‘포스트 시즌’(최종 우승 팀을 가려내기 위해 실시하는 경기)이 한창이다. LA 다저스와 탬파베이 레이스가 우승을 다투고 있는데, 이들 팀에는 커쇼나 벨런저 등 스타플레이어가 즐비하다. 하지만 더욱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 쿠바 출신인 랜디 아로자레나(탬파베이)이다. MLB 최저연봉(56만 달러)의 무명에게 가까운 이 신인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서 무려 7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다.

구부가 없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야구를 하게 됐다”고 말한다. 박종환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1년만 훈련시키면 국가대표도 되겠다”고 말한 적도 있는 만큼, 바람의 아들이 축구를 했다면 아마도 월드컵에서 엄청난 골 폭풍을 일으켰을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의 사연도 재미 있다. 광주 화강초등학교에 다닐 때 야구보다 축구를 좋아했는데 학교엔 아쉽게 야구부만 있었다. 그는 긴 급식 줄을 벗어나 ‘밥을 빨리 먹기 위해(?)’ 야구를

엇갈린 꿈

선수로서의 이력도 특이하다. 어린 시절 야구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이 가난해 글러브조차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축구를 했다고 한다. 호날두를 롤모델로 훈련하던 그에게 어느 날 야구팀 코치가 찾아왔다. 배트를 쥐어 주며 “선수 한 명이 비는데 한번 쳐 보라”는 것이었다. 그 한 번의 배트가 그의 운명을 바꿨다.

우리 주변에도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선수들이 있다.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이종범, 그가 뛰어난 축구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종범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광주 서림초등학교에 축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의 길게 늘어선 급식 줄 덕분에 타이거즈는 우승 컵을 들 수 있었고, 국가대표팀은 1선발 투수를 얻었다.

반대로 야구선수의 꿈을 접고 축구선수가 된 경우도 있으니 한국축구의 ‘보물’ 박지성이었다.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다니다 아버지를 따라 경기도로 전학을 간 박지성은 야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에 야구 팀은 없었고 4학년 때 축구팀이 창단되자 바로 축구를 시작했다. 그때 만약 축구 애인 야구팀이 창단됐다면 대한민국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는 꿈속의 일이 됐을 지도 모른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기고

부모가 되기 전 ‘부모 교육’부터



김수지 전남서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치료실장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76.8%(상황에 따라 필요 68.3%, 필요 6.5%, 매우 필요 2.0%), ‘필요 없다’가 23.2%(필요 없음 18.2%, 전혀 필요 없음 5.0%)로 보고돼 우리나라 국민의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학대 행위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중 아동의 친부모인 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자녀의 문제 행동을 열거하며 아동 학대를 정당화하고 억울해한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었기 때문에 학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아동 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친부모가 56%로 가장 많았다.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동을 학대한 부모도 다른 부모와 같이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잘 키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부모가 되기 전, 부모 교육

를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초등교육부터 사회인이 되기까지 공부하란 말을 귀가 아프게 들었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좋은 부모’에 대한 지식이 없어 아동 발달 단계 특성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왜곡된 부모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거나 부모 역할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자녀와 갈등 관계를 유발하기도 하고 학대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부적절한 양육 방법을 가진 부모만의 문제일까?

부모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면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양육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모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올바른 양육 태도를 습

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 계획을 가진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아동의 전반적 발달 단계 및 부모가 자녀야 할 올바른 양육 태도에 관한 예비 부모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요즘과 같이 코로나 감염증장 장기화로 집합 교육 참석이 어렵거나 직장 생활로 시간 활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통해 예비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필수 교과 과정에 예비 부모 교육을 포함시켜 단계별 다양한 양육 체험 경험으로 좋은 부모,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기회가 활발히 제공되었으면 한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모든 예비 부모에게도 부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주어 준비된 부모로서 아동을 양육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